



3면

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본격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음 3월 19일) 제37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유치

고령화·인구감소 대응·농촌 공동체 회복 거점 기대
전북자치도, 2023년부터 2년 간 농식품부와 협의의 이어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인한 경제사회 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성이 농촌사회 활력과정은 1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건립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2025년 4월 16일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농촌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지방소멸 지연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교육훈련기관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3년 8월 16일 제정, 2024년 8월 17일 시행)에 따라 운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인원이 확대되어 운영된다.

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며, 사회적 농업과 지역서비스 공동체, 특화 서비스 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우선 전국 사회적 농장 146개소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분야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과정은 당일형, 1박 2일형, 2박 3일형으로 운영되며, 총 3개 분야 3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약 570명이 수료할 예정이며, 오는 2026년에는 1,200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향후 매년 2,0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훈련기관 운영에는 국비 52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센터 건립에 140여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국비 70억원, 도비와 시비 각각 35억원이 투입되어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일원에 지어진 활성화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약 3,000㎡)로, 전자철관이 설치된 첨단 강의실 4개, 대회의실, 숙박시설, 사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도 이미 확보했다. 전북연구원 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단'이 신설되어 황영모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



전북특별자치도 정성이 농촌사회활력과정(사진 왼쪽)이 16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유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력 5명, 전문 강사 3명, 교육 강사진 22명이 확보되어 활동을 준비 중이다.

교육훈련기관 유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부가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청소, 세탁 등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인근 주민을 우선 채용하며, 교육생들의 식사제공 역시 지역 식당 및 업체와 연계한다.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김제 인근 지역 상

권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이 지정기관으로 역할을 맡지만, 실제 유치는 전북도가 주도했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독립적인 재단법인 설립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재단 설립이 늦어지면서 전북연구원이 맡게 되었다.

전북연구원은 과거 융복합 산업 관

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업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 활력과정은 이번 유치에 대해 앞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유치한 교육훈련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인 전달이 가능해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전국 단위 교육과 훈련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촌 공동체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체 해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그 해법의 첫 단추를 꿰 것으로 평가된다.

도민들은 이번에 유치된 전국 규모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향후 교육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파급되며, 농촌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최지현



노아름

전북 빙상 저력 입증

도청 최지현·노아름

女쇼트트랙 국대 선발

전북특별자치도청 빙상팀 최지현·노아름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1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2025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2차전 여자부 경기에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 최지현과 노아름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선발전은 전국에서 선발된 여자부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졌다. 최지현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주력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노아름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코너 주향 능력을 앞세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두 선수는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쌓아왔다. 향후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현관에서 세월호 참사 제11주기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추념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같은 비극 반복되지 않길”

전북교육청서 추념식 개최... 4월 '학교안전의 달'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1층 현관에서 세월호 참사 제11주기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국민을 추모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추념식에는 유정기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전북학생의회 대표 학

생, 교육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념식은 서거식 교육감 추념사, 학생 대표 추모 메시지, 학교안전과장의 안전 결의문 낭독, 추모 리본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안전 결의문을 통해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예방교육 및 훈련 확대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생 중심 안전

문화 정착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4월을 '학교안전의 달'로 지정, 도내 각급학교에서도 자체 추념 활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학생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다짐”이라며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력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美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기업 통합 홍보부스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5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역대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개최되며, 전북특별자치도관에는 15개 기업이 참가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참가기업들은 식품 8개, 건설 및 전기 5개, 패션/뷰티 1개, 농림축산 1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특화 제품을 앞세워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계약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미 관세 여파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내 기업 11개사에 대한 통합 홍보부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